



8.20 부품사 노동자 총파업
8.21 부품사 간부 양재동 총집결

자동차 노동자 총파업 지금 이 싸울 때입니다

도 넘는 부품사 쥐어짜기! 이러다 정말 다 죽습니다.

부품사 피를 빨아 이윤을 쌓는 현대차 정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단가인하, 기술탈취, 물량협박, 수시감사, 복사발주, 입찰경쟁... 현대차를 향한 부품사 노동자들의 분노는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도를 넘어 상식밖에서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목표율에 따라 상과 벌을 주겠습니다. 물량으로 협박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도 무시합니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부품사 노동자를 존중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큰 실수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려 줍시다. 부품사 노동자가 현대차 재벌의 독주를 끊읍시다.

현대차 원가절감 거센 압박 협력 업체 “문 닫으란 소리...”

"다 올랐는데 20% 인하 어떻게"...현대차·기아 원가 절감에 부품업체 '한숨'

현대차 공급망에 번지는 원가절감 압박..."20% 못 줄이면 입찰 제외"

"현대차 원가절감 요구는 하청 사형선고"

금속노조, 부품사 원가 20% 절감 요구 규탄 ... "완성차 공급망 일자리 보호할 사회적 대화" 요구

자동차산업 미래는 구조조정? 눈뜨고 당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미래에 '노동'은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 언론은 미래 산업을 휘황찬란한 장미빛으로 포장하지만 아무도 노동의 대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 비용은 부품사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숙련도가 좋은 부품사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1차 업체는 2차를, 2차 업체는 3차를 쥐어짜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선 재벌승계의 희생양이 될 순서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생존권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부품사 노동자가 엉망진창인 자동차산업을 바로 잡읍시다.

충남 부품사 동지들, 자동차는 누가 만드는지 보여줍시다!

부품사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분노와 불만이 있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대차에 찍혀 신규아이템 못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을 견어내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차는 부품사 노동자들을 호구로 보고 마른 수건에 물 한방울 나올때까지 더 쥐어짤 것입니다. 후배와 자식들에게 지배와 착취는 대물림될 겁니다. 함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산별노조로 뭉친 이유입니다. 완성차는 부품사 노동자를 통해 완성된다는 자신감으로 현대차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고 투쟁으로 쟁취합시다!



2026년 8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의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상 호